



대행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모든 게 본래면목 자리서 나고 듭니다

관했는데 뜻대로 안됐어요

문 저는 제가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언젠가 정말 주인공에게 맡기고 관을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주인공 공부의 일환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죠. 이 공부란 하느님 안 하느님이 붙는 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으니 살고 있는 이 생활이 즉 교재고 공부입니다. 살아나가면서 겪어야 하고 그런데 뭐 내가 다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이런 거 걱정을 합니까? 사실 나의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종교를 믿고 안믿고를 떠나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가 공부 가 되는건가 안되는건가하고 생각하는 건 못 믿기 때문이에요. 꽃나무가 만약에 자기뿌리를 못 믿어서 내가 지금 꽃이 피고 있는가 안피고 있는가 이리한다면 그 말이나 될 뻔한 일입니까? 나무들이 '내가 지금 열매가 맺을까?' 꽃은 켜는데 열매가 맺을까 못 맺을까 이리한다면 그 말이나 됩니까? 그냥 뿌리가 있기 때문에 썩어 있거나 그대로, 그대로 여여하게 살고 열매도 맺고 꽃도 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그거를 내가 공부 가 잘 되는가 안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건 못 믿으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완벽하게 내 뿌리가 있다는 것만 믿는다면 그 작은 거기에 의지하고 전체가 거기에 의지하게 됩니다.

49재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문 사립구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답 본래는 49재까지도 가지 않아요. 이 도리를 알면은, 그 전에 어떤 신도님에게 "아버지가 당신 마음에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풀방울 한 방울이 있는데 한 방울 마저 한 방울과 같이 한 거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가 그냥 하나가 돼서 사는 거죠. 그와 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49일을 해왔으나 49재, 한 할나예요. 몸통이 가기 사흘 전에 벌써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전에도 49일이 될 수 있죠. 꼭 49일만 49일이 아니예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급하게...

모든 게 나 아님이 없고

일체제불 마음과

조상들의 마음이

돌아난 까닭에

한자리서 이뤄지니

마음의 인등결때

그 자리서 천도돼요

예를 들어서 부모상을 입은 사람이 할리 식구가 외국에를 가야할 텐데 49재를 지내고 가야한다면 사흘을 49재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라는 얘이죠. 그거는 부모의 목은 은혜를 갚게 하기 위해서 49재, 7.7재 해놓은 거죠. 이 도리를 체득하면 그렇게 자유스럽다는 얘입니다.

'놓는다' 는 말 아리송합니다

문 저는 몇 년 동안 책도 읽고 법회에도 참석했었습니다... 말긴다는 말은 알겠는데 놓는다는 말은 아리송하 기만 합니다.

답 믿고 놓고 말기라는 건 우리가 배워가지고 믿어야 되겠다 이러는 게 아니고, 본래 깨어져 있으니까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믿고 맡겨 놓는다는 것이 바로 내 잊 눈썹과 아랫 눈썹 같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름을 믿을 겁니까? 형상을 믿을 겁니까? 이 세상에 누굴 믿 겠습니까? 부부들끼리도 할 말 못할 말 가려서 해야되고 자식한테도 가려서 해야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알고, 슬프고 즐겁고 한 것은 자기 뿌리만이 알고



그림 · 최주현

공부 잘되나 안되나 걱정은 못믿기 때문 우리의 생활이 그대로 교재이고 참선

있는 겁니다. 본래면목을 알고 들어가면 무엇을 믿고 말고 할 것도 없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니까 '믿어라' '맡겨라' '놓아라' 하는 거예요. 믿고 놓고 맡기라 할 때 중심을 딱 세우고 생각을 잘 해야지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빼버린다면 나침반이 없는 격이니 어떻게 부처가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본래면목 자리에서 나고 드는 것이니 잘 생각해서 그 자리에 놓고 돌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먹고 자고 일하고 하는 그대로가 용(用)이라고 해서 '이게 그냥 용이 아니겠느냐' 한다면 생각하기 이전을 볼 사이가 없어요. 도리

를 알면 그대로가 '용'이지만 그것을 모르기에 처음에는 그냥 '용'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경계를 한군데로 몰아 누가 하는 것인가. 용이 나오기 이전, 말 나오기 이전, 생각하기 이전을 침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놓고 맡기라는 것이 말만 틀릴 뿐이지 그 뜻은 다 같은 겁니다. 믿는다면 놓을 수 있고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맡겨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조상님을 주인공에 놓는이유

문 큰스님 법문을 듣다가 의문이 나서 질문을 드립니다.

항상 나와 조상님이 한자리 하고 있는데 왜 주인공에다 조상님을 놓으라 하셨는지요. 또 조상님을 주인공에 놓는 것과 조상님이 같이 한다고 믿는 것과 공부하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답 그것은 세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 차원은, 모르는 사람들이 형식에 따라서 천도식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라도 해라' 하고 말씀해 놓으신 거를 따라서 그렇게 해주는 천도식이 있고, 또 한 단계는, 여러분이 이 도리를 공부하면서, 주인공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처음 오신 분들도 그렇고,

스님네들이 마음의 도리를 알아서 딱 한 그릇을 차려놓고 한다 하더라도 함이 없이 차림이 없이 했을 때, 비로소 영령들께서 그 마음 안에 들어오면 전체가 내 아님이 없는 도리에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러나 어떤 거를 먹고, 어떤 거를 갖고, 어떤 거를 할 게 없이 전체가 자기 거니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스님네들이 공부한 차원에 따라서 그 영령들도 천도가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 신도님들은 즉 말하자면 천도를, '우리 조상들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또 조상들 위해서 이렇게 해야 자신들도 잘된다'라 하는 생각으로서 천도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생각을 할 때, 모든 걸 맡겨 놓고서 조상님의 천도를 할 때, 일체제불과 조상님들이 자식을 위한 마음, 마음과 마음이 한데 합쳐집니다. 합쳐짐으로써 즉 말하자면 수분이 적은 사과같은 데다가 꽃이 꽃이 되고서 불을 켜는 그러한 불과는 달리, 아주 큰 밝은 불을 켜는 때 '아이구, 내가 추웠는데 저기 큰 밝은 불이 있으니까 그리로 가서 따뜻하게 앉게 살아야겠다' 했을 때에 그게 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알지도 못하고 살면서 끄달리다가 돌아가면 그 차원의 그릇 밖에 안됩니다. 사발이다 종이 다. 이렇게 천차만별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한 그릇에 갖다가 놓고 밝게, 개미도 지나갈 수 있는, 개미 지나가는 것도 볼 수 있게끔 밝음을 그대로 맞출 수 있고, 모든 게 나 아님이 없고 먹을 것도 내것 아닌 게 없으니 한 할나에 천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단계는,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모든 것을 정말이지 담당하고 원력이 있고 그랬을 때 '일체제불의 마음이 나 모든 조상들의 마음들이 풀이 아닌 까닭에, 그 한자리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나고 드니 몇 가지 놓고 놓고 해 봤자야 그것이 아니지 않나' 하는 원력이 있을 때에 그것은 촛불 하나 안 켜봐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인등을 켜니까, 그 밝은 인등을 켜기 때문에 그 인등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한마음 속에 온 누리를 다 담고도 남음이 있고, 밝고 온 누리에 통신 안 됨이 있고, 온 누리에 한마음으로 공심으로서 돌아갈 때에 그 조상의 마음도 그냥 거기 한자리 하는 거죠. 따로 지내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나' 하나 죽는다면 계율은 절로 다 떨어진다.

더러우면 닦고 흐트러져 있으면 가다듬고 망가지면 고치고 하는게 계행이니 생활 속에 하나부터 열까지 계를 안인 것이 없다. 올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행하며 사는 것이 계행이다.

부처님의 계율은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라'가 본 뜻이 아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많이 하다 보면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아무리 나쁜 것이라도 용도와 분수에 따라서 한다면 재고의 여지가 있다. 예컨대 오계만 해도 '하지 말라'로 일관되어 있지만 요즘에 와서는 긍정적으로 '상생하지 말라'로 '평등한 자비심으로 생명을 사랑하라'로 '도둑질 하지 말라'를 '보시를 행하여 부덕을 지어라'로 '사음하지 말라'를 '몸과 마음으로 청정함을 닦아라'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를 '진실만 말하고 신뢰를 지켜라'로 '술 마시지 말라'를 '언제나 밝고 바른 지혜를 가져라'로 해 놓으니까 계율이란 안 함으로써 지키는 게 아니라 부처님 뜻을 받아 행해서 지키는 것이 된다. 근본 마음이 청정하고 바르면 따르이 세울 게 없다.

계율을 세우려면 2백50개가 아니라 수 천 개도 세울 수 있다. 세상 전체가 계율 아닌 계 어디 있는가. 문제는 절로 세워 놓은 계율이 아니라 근본 마음이다. 가령 남을 조금이라도 해롭게 하는 행을 한다

면 계율을 범한 것이고, 그러한 생각을 한 번 일으켰다면 그것 또한 계율에 어긋나는 것이다. 모든 계율이 한군데서 나오 드는 걸 알면 계율이 몇 개이든 전체 계율을 다 지키는 것이고, 그것을 모른다면 전 계율을 다 어긋나는 것이다. 2백50개다, 3백48개다 할 것이 없이 전체가 계율이니 한마음으로 지키고 행해야 한다.

계율은 주어지면 짐이다. 그러나 일체 경계를 다 근본주체에 놓아 가면 구태여 계율의 자로 제지 않아도 저절로 계율이 지켜진다. 그때의 계율은 자유의 날개이다. 계율에 자기를 맞추려 하지 말고 내 안에 이미 갖춰져 있는 계율이 우리나라로 하라.

모든 것을 주인공 자리에 맡겨 놓는다면 구태여 팔경도니 육바라밀이니 사성계니 십이인연이니 따지지 않더라도 계율을 다 지킬 수 있고 더불어 다 같이 유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계가 된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일일이 따져서 이렇게 보아야 한다. 이렇게 들어야 한다. 이렇게 정진해야 한다는 식으로 모든 소리를 다 해야 하고 그렇게 행해야 한다면 복잡해서 언제 자기를 알 수 있게 되겠는가. 그러기에 이론 따지고, 경전 따지고, 학식 따지고, 율고 그를 따지고 할 사이 없이 '곧바로 들어가라!' 하는 것이다.



중생인 나를 못 미더워 한 나머지 나를 부정하며 계율로 얽어 매기보다는, 부처인 나의 근본을 믿어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하라. 그것이야말로 계율을 초월하여 계율을 지키는 긍정의 방법이다. 본래 부처인 우리들은 자신의 빛으로 사는 것이다.

불법은 자유인이 되기 위한 공부이다. 자유인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계정해가 세워졌다. 그러므로 자유인이 되기 위한 계정해가 새로운 굴레가 되어 부자유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주객이 뒤바뀐 일이라 아니 할 수가 없다.

계율이 이리하고 청규가 이리하니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계율을 들고 있는 사람보다는 계율을 다 놓은 사람이 진실로 계율을 지키게 된다. 그렇다고 계율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다. 인연 줄이 얽히고 설킨 데서 일어 서려면 먼저 관원의 굴레를 벗어 던지는 작업부터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가 시켜서 가 아니라 상대와 때와 장소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데 자기 마음으로 자기를 다스려야 하지만 내 속에 있는 중생들은 모르니까 때에 따라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나온다. 그때에 다시 굴러서 되돌고 또 놓고 가면 바로 굴레에서 벗어나려 애쓰지 않아도 벗어나게 되는 것이

니, 따라서 남이 주는 계율에 매이기 전에 먼저 안으로 놓는 작업부터 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직접 들어가는 순리이다.

마음으로부터 계율이 우리나라로 오려면 모든 경계를 하나로 보아야 한다. 예컨대 누구로부터 까닭 없이 한데 맞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마음 안으로 굴러서 녹여야 한다. 그때야 자연스런 계율이 우리나라로 온 것이다. 고로 마음법에서는 인욕이 이미 인욕이 아니다. 그것은 참는 게 아니라 이미 '참을 것도 없음'이다. 그렇게 크나큰 마음, 대장부의 마음으로써 세상을 보아야 하고 살아야 한다. 그것이 곧 불법의 생활화인 것이다.

원동을 벗어난 사람인 경우에는 자재로이 통 안팎을 들고 날 수가 있으니까 무슨 것을 해도 걸림이 없다. 그러나 통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에게 한해서는 통 안팎이 서로 보고 듣고 행동하고 느끼고 하니 걸림이 많다. 따라서 계가 걸리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눈에, 귀에 거슬려 그로 하여금 마음에 걸림이 있게 해서는 안된다. 제이무리 저 언덕을 넘나든다 해도 일체는 개별적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돌아가므로 모르는 사람에게 귀찮음 지어 주어서는 안된다.

협찬: 주인공